

“내 교회주의”: 우상과 우상 타파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어떤 특정 교회를 생각하고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며 기쁨을 받을 처사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인물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런데 왜 이처럼 자기 교회를 돌보고 애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AT1: 자신의 교회를 아끼고 돌보며 위해서 힘을 쏟는 일

그리고

AT2: 늘 자기 교회의 외형적 팽창에만 착념하는 것

을 구별하고자 한다. (AT1)은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견지하는 성숙한 태도인 반면, (AT2)는 빛나간 욕심에 이끌린 이상 숭배적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AT2)에 대해서는 “내 교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 교회주의”라는 이상 숭배

어떤 이는 그저 자기 교회의 번창에 몰두하는 일을 “이상 숭배”로까지 매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의아해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교회주의”의 실상이 소개되고 나면 오해가 풀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시점에서 “내 교회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누적적으로 작용할 때 “내 교회주의”가 성립된다는 말이다.

첫째, “내 교회주의”는 개(個)교회 중심의 관점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사로잡고 있

는 관점은 개교회 중심의 사고 방식이다. 교회에 관한 모든 상황, 형편, 처지를 항상 자기 교회의 입장에서만 파악한다. 이것은 특히 목회자들에게서 훨씬 더 빈번히 또 강렬한 정도로 발견된다. 그들은 교회가 어떤 방침이나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이 자기 교회에 유익이 될까 아닐까에만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이나 결정 사항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기독교적 대의(大義)를 드높인다고 해도 자신의 교회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든지 뒷전으로 물려 버리든지 한다. 이렇다 보니까 목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항상 자신의 교회와 연관해서만 이루어진다.

둘째, “내 교회주의”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역의 주요 목표를 수적 성장에만 둔다. 교회와 왜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번듯한 신학적 답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등등이 그런 답변이다. 문제는 이런 존재 이유가 목회의 현실 가운데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오히려 이런 항목들 보다는 “교회의 수적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가 실제적 동인이 된다. 또 이러한 실용적 존재 이유에 맞추어 교회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

사태를 더욱 심각히 만드는 것은 첫째 특징과 둘째 특징의 연접에 있다. 만일 어떤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느 한 가지 특징만 있다면,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도 있



송인규 (前)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다. IV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복음과 지성」,「고립된 성」,「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MP), 「이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다. 예를 들어 개교회 중심이기는 하지만 영적 성숙을 교회의 존재 이유로 삼는다면 [첫째 특징은 있지만 둘째는 아님], 교회의 수적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둔다면 [둘째 특징은 있지만 첫째는 없음] 할 경우에는 그것이 “내 교회주의”라는 이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특징과 둘째 특징이 함께 상호 영향을 끼치며 변성할 때 급기야 이상 숭배의 제의적(祭儀的) 면모는 꿈틀거리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내 교회주의”는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와의 비교·경쟁 의식에 의해 심화된다. 한국 교회 내에 개교회 중심의 수적 성장 경향이 고질화된 것은, 다른 교회(및 다른 목회자)와의 비교 의식 및 불필요한 경쟁 의식 때문이다. 이 역시 일반 교우들보다는 목회자의 경우에 더 뿌리가 깊고 파급 정도 또한 광범위하다. 물론 이런 심리 상태가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끼리는 이것이 얼마나 은연 중에 파괴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개인적 소문과 뒷담화, 목회자끼리의 비공식적 회합이나 만남, 노회나 총회 등의 공식 집회 등을 통해서 이런 성향은 교묘히 목회자의 심령을 불건전한 방향으로 부추기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이미 첫째와 둘째 특징만으로 “내 교회주의”라는 이상 숭배 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셋째 특징은 이미 형성/성립된 이상 숭배의 영향력이나 정도와 상관이 된다. 예를 들어, 자기 교회의 수적 성장에 몰입한 [첫째 특징과 둘째 특징의 보유] 어떤 목회자가 평소 경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교회나 그 목회자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셋째 특징의 개입], 그 폐해적 위용은 대단해진다. 일단 이런 심리 상태가 궤도에 오르고 가속화되면, 연관된 지도자는 그 마음속에 제단을 쌓고 “자기 교회의 수적 확장”이라는 금송아지를 모셔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는 이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모든 목회 사역과 목회 활동은 오직 이 금송아지를 높이고 섬기는 데 바쳐진다. 그의 심령은 수적 번창의 욕구로 뿔뿔 타오르고, 금송아지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와 크기가 증대한다. 이를 보고 어찌, (골 4:5) 탐심은 이상 숭배니라 라는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문과 답변

물론 아직도 필자의 이상 숭배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 앙금을 분석해 보면 대개 두 가지 의문으로 축약이 된다.



(i) 첫째 의문: 자기 교회를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AT1)과 “내 교회주의”의 첫 번째 특징 — 개교회 중심의 관점 — 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두 가지 항목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첫째, (AT1)은 교회를 좀 더 유기체(organism)의 차원에서 보고 있고, “내 교회주의”는 좀 더 조직체(organization)의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체 교회적 시각과의 양립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즉 (AT1)은 얼마든지 전체 교회적 시각과 함께 주장될 수 있으나, “내 교회주의”는 개교회 중심적 시각이 핵심 신념이기 때문에 전체 교회적 시각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AT1)과 “내 교회주의”의 첫 번째 특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이다.

(ii) 둘째 의문: 자기 교회의 수적 확장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자는 속으로 은근히 “꼭 그렇지는 않다”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했음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이런 욕구는 성경의 관심과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고 반(反) 성경적 경향을 충동질하기 때문이다.

우선, 성경은 개교회의 수적 성장에 대해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교회의 문제점이나 지향점을 다루고 있는 사도들의 서신 — 바울의 서신들, 베드로전후서, 요한 서신들 — 만 하더라도 수적 확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권면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 힌트조차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에도 각 교회에 대한 관심은 신학적·교리적·윤리적·상호 관계적 이슈 및 질적 성숙과 연관되어 있지(cf. 롬 1:17; 고전 1:10-11; 갈 1:8; 엡 4:11-16; 빌 4:2-3; 골 2:1-5; 살전 4:1-18 등) 수적 성장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교회의 수적 성장을 도외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사도행전에는 수적 성장에 대한 보고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난다(행 2:41; 4:4; 5:14; 6:7; 9:31; 11:21,24;

16:5). 그러나 사도행전의 수적 언급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데 대한 전체적인 보고(cf. 행 1:8)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개교회의 수적 확장이 궁극적 관심사는 아니다. (특히 행 9:31이나 16:5은 교회 전체에 대한 수적 증가를 말함으로써 이 점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수적 보고를 근거로 해서 개교회의 수적 확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우상 타파에의 길

그러면 “내 교회주의”의 우상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 교회의 수적확장에만 급급하는 탐욕적 자세를 고칠(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을까? “내 교회주의”의 특징이 세 항목이었던, 우상 타파의 방안 역시 세 가지 항목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이해/파악과 관련하여 전체 교회의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상황, 형편, 처지 등의 파악에 있어서 한국 교회 전체의 시각으로 조망해야 함을 의미한다. 목회자는 개교회 입장에서의 득실 여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무엇이 한국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한국 교회 전체에 손실이 될지 판정해야 한다. 한때 바울 사도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후 11:28)는 진술을 통해 이러한 전체 교회적 시각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전체 교회적 시각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의 심정과 시각으로”(cf. 마 9:36) 한국 교회의 형편을 파악하고자 하는 고상한 시도이며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길은 한국 교회의 실태를 종교 사회학적으로 기술한 자료나 책자를 읽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및 교회의 활동이 객관적 종교 현상의 일부로도 취급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

로 한국 교회를 설문·통계 수치에 관한 실증 자료 및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한 발견 사항들에 비추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물론 종교사회학의 비판적 관점을 덮어놓고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신성한 자국으로 여겨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한국 교회 전체 시각에서의 실정 파악이 개교회적 실정 파악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얼마든지 개교회적 시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실상이 두 가지 시각은 함께 견지되는 것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길이라고 하겠다.

둘째, 수적 성장에의 집착을 무력화할 수 있게끔 목회자 나름대로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어느 하나에 최종적 우선권을 부여하면 나머지 사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리게 된다. 이것은 예수께서도 가르쳐 주신 바이다(cf. 마 6:24). 그러므로 “내 교회주의”를 좇아 수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교우들의 질적 성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상의 관심을 쏟을 수가 없다. 반대로 만일 교회의 질적 성숙이 목회자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면, 수적 성장은 자연히 덜 중요한 것으로 낙착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질적 성숙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왕도나 특수한 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피고 연구하여 그 원리를 내면화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몇 개월을 투자하여 성경을 읽으며 새로이 발견한 것, 깨달은 것을 정리하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물론 정리한 바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 실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또 교회론이나 목회학 분야에 있어 신학적으로도 건실하고 시대적으로도 적실한 기독교 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 성경 연구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전도 활동이나 교회의 전도 사역은 중단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개인 전도를 포함한 전도 활동은 “내 교회주의”와 무관하게 늘 수행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도는 결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눅 15:7; 벰후 3:9),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일이다(눅 19:9-10; 요 20:31). 그리스도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인의 수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전도가 꼭 교회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도 활동을 해도 그것이 꼭 개교회의 수적 증가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고, 믿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이라고 해도 다른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교회의 교회 성장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전도 활동은 늘 있어야 한다.

셋째, 오늘날의 목회적 유행과 세태에 영향 받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 사회 환경에 의해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목회자들끼리 서로 간에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것은, 교회의 수적 성장을 통한 자기 가치(self-worth)의 확인이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목회자의 심령 깊숙이 각인이 될 지경으로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이런 빛나간 가치관은 목회자끼리의 교류를 통해 거의 무의식적 차원에서 세력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사역과 관련한 목회자의 자존감이다. 이는 자신의 목회 규모가 크든지 작

든지 간에 건전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 능력을 갖추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보다 교세가 크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에 대해서도 시기나 비굴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축하와 인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기보다 외형적·내용적으로 규모가 작게 활동하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자랑과 교만보다는 풋풋한 동료 의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경으로 일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내적 태도와 건전한 자신감의 형성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고 또 매일 그 부르심이 자기 목회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동시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오직 이런 목회적 자존감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목회자끼리의 비교·경쟁 의식의 뒷에서 자유로운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우상이 있다. 그 대상은 돈·성(性)·명예·과학 기술·민족주의·개인주의 등 날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상들은 외형적으로 세속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애초부터 경계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내 교회주의”는 다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우상이지만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껍질을 쓰고 있어서 우상인지조차 식별이 쉽지 않다. 또 일단 이 길로 들어서면 “내 교회주의”의 열심은 더욱 더 우상 숭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방면의 우상 숭배자가 어디에나 그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다.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한시 바빠 이 뒷에서 헤어나오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더욱 좋은 길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우상과 단호히 결별하는 식으로 마음을 정하고 목회 방침을 펼치는 것이다. 